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유적 답사기 김은채

완도 묘당도(고금도)에는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마지막 수군 본영이었던 충무사가 있다. 이곳에서는 명나라수군과 조선의 수군이 연합군을 이루어 왜군과 싸웠으며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이 관왕묘를 세워 승전을 기원했다고 한다.



< 완도 묘당도 충무사(사적114호)사와 유적 해설 >

우리와 함께 충무사를 찾아간 아빠는 여기 묘당도가 고향이다. 어린시절 학교에서 이곳 충무사로 소풍을 자주 다녔다고 한다. 학교에서 두시간 반을 걸어야 올 수 있는 먼 길이지만 늘 이순신장군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소풍을 오면 전혀 힘들지 않으셨다고 한다. 예전에도 아빠, 엄마와 함께 이곳

을 찾아 왔던적이 있지만 작년에 영화 ‘명량’을 보고 이곳을 다시 찾아오니 아빠의 고향에 이순신장군의 유적지가 있다는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충무사 안으로 들어가면 홍살문, 외삼문, 중삼문, 동재와 서재등이 있으며 이곳에는 두 가지 유물이 있다.

첫째는 관왕묘비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군이 지켜준다는 믿음에 의해 진린 제독이 세운묘비이며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는 우수영 전진도첩(전라남도 문화재163호)이라는 수첩인데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당시 직접 군사를 지휘하였던 방법이 적혀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아산현충사에 있는 자료는 모사본이라고 한다. 밖으로 나와 주변에 병사들이 사용했다는 우물과 훈련장을 둘러보았는데 관왕묘비뿐만아니라 건물곳곳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이순신장군은 농토가 많아 이곳 묘당도에 진을 설치하였으며 진을 세운 이후에는 근처에 있던 왜군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전쟁이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충무사의 건너편에는 이순신장군의 유해가 안치되었던 월송대가 있다. 노랑으로 출전하여 1598년12월16일(음11월19일) 아침, 54세의 일기로 순국하자 이곳 묘당도로 유해를 80일간 모셨다가 그이듬해 3월 7일 이순신 장군의 고향인 충남 아산의 묘역으로 모시고 간 가슴 아픈 자리다.

아직도 풀이 자라지 않고 있는 이곳은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생각하는 수많은 근심걱정과 한이 묻혀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집에 돌아오면서 아빠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장군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와 동생도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힘들고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80일간 모셨던 자리>

어려울 때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손가락 결고 약속하였다.